



사찰음식 불교한류 침병

조계종, 사찰음식 세계화·대중화 나섰다

뉴욕서 '한국 사찰음식의 날' (9.20)

2009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의 경쟁력 있는 문화관광상품으로 템플스테이를 꼽았다. 사찰에는 수천 년을 이어진 한국불교 고유의 역사와 문화가 간직돼 있기 때문이다. 템플스테이와 함께 주목받기 시작한 한국불교 문화가 있다. 사찰음식이다. 사찰음식이 주목받는 이유는 최근 웰빙, 로하스, 친환경, 생태주의 등의 영향으로 채식이 각광받기 때문만은 아니다. 사찰음식전문가 선재 스님은 "사찰음식은 단순한 건강식에 그치지 않고 지혜를 증장시켜준다"고 말한다. 이런 가운데 조계종(총무원장 자승)이 9월 20일 미국 뉴욕에서 '한

국사찰음식의 날'을 개최한다. 행사에는 현지의 각국 언론인 250여 명이 초대돼 한국 사찰음식과 한국불교문화를 체험할 예정이다. 행사에는 한국사찰음식연구회 회장 적관 스님과 선재·대안·우관·정관 스님 등 국내의 사찰음식전문가들이 참여한다. 발우공양 시연 등 한국불교문화 전통과 가치가 구현된 프로그램에 불교, 한국 전통차 시연·시음 등 문화중심 프로그램을 더해 오감만족형 프로그램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조계종 문화부장 효탄 스님은 행사에 앞선 1일 서울 인사동 모음식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의 사찰음식전문가 스님들의 노하우를 살려 불교문화를 알릴 아이টে"라고

사찰음식을 선정해 국제무대에 선보이게 됐다"고 말했다. 스님은 "한국사찰음식의 날" 행사를 통해 한국의 사찰음식을 미국 사회 내 오피니언 리더 그룹에게 선보인다면 한국불교문화에 대한 우호적인 정서 확산과 함께 서구사회에 불교에 대한 관심으로 무리 없이 전환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내비쳤다. 조계종 기획실장 율담 스님은 "한국사찰음식의 날" 행사는 조계종과 한국불교의 브랜드 및 이미지 확산을 통한 불교적 한류(韓流)를 확산시킬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2면으로 계속

조동섭 기자 cetana@buddhapia.com



음악이 있는 곳에 상상밴드. 종로노인종합복지관(관장 정관)은 9월 1일 복지관내 강당에서 '상상밴드 창단식'을 개최했다. 60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참여한 '상상밴드'는 음악이 있는 종로구를 만들기 위해 결성된 밴드로, 종로구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행사에 참여해 노장의 열정과 자력을 보여줄 계획이다. 박재원 기자

자연공원 내 건축불사 쉬워진다

여야 자연공원법 개정안 발의... 문화유산지구 신설

조계종 "요구 수용 환영" 부문별한 건축불사 우려

자연공원에 사찰소유지를 강제 편입시켜 문화재 관리 및 사찰 수행 환경 등을 침해해 온 자연공원법이 불교계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쪽으로 개정될 전망이다. 한나라당 주호영 의원(대구 수성구)과 민주당 강창일 의원(제주서)은 8월 31일 각각 대표발의한 자연공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주호영·강창일 의원은 "현행 자

연공원법은 자연공원을 공원자연보존지구·공원자연환경지구 등 생태계 보전 위주로 용도지구를 규정해 문화재를 보유한 사찰 등의 발전을 조려하고 있다"며 개정법률안의 취지를 밝혔다. 두 의원은 개정법률안에서 자연공원 내 사찰 경내지 중 문화유산 보존 등에 필요한 지역을 '공원문화유산지구'로 지정해 했다(안 제18조제1항제6호 신설). 전통사찰의 의견을 수렴해 문화재 관리행위와 전통사찰 불사를 가능케 했을 뿐만 아니라(안 제18조제2항제6호 신설), 공원

관리계획 수립 시에도 전통사찰의 의견을 묻도록 했다(안 제17조제3 및 제71조제1항 후단 신설). 또, 문화재관람료 민원 해결을 위해 공원문화유산지구 입장료 징수·징수할 수 있게 했다(안 제37조제2항 및 제42조제2항 단서 신설). 이에 대해 조계종(총무원장 자승)은 9월 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자연공원법 개정안에 대해 설명했다. 조계종 기획실장 율담 스님은 "부족하지만 정부와 정치권이 이제라도 종단의 요구를 수용해 자연공원

내 문화재와 전통사찰이 갖는 역사문화적인 가치를 인정하는 자연공원 정책을 도입하기로 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 통과시 그동안 자연공원 내에 위치한다는 이유로 제약을 받던 사찰의 불사가 무분별하게 진행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시민단체 등과 갈등을 빚어온 문화재관람료 징수를 대신할 '공원문화유산지구 입장료' 징수의 사회적 공감대 형성도 과제로 남았다. 율담 스님은 "종단은 아름다운 자연환경이 후손들에게 지속될 수 있도록 환경감시 기능을 강화하겠다. 일부에서 우려하는 사찰의 무분별한 개발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종단 내 불사관리시스템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련 인터뷰 4면 조동섭 기자

"사찰문화재는 공공문화유산"

연사연 국고 예산지원 변화 촉구

일부 개신교 단체 등이 불교계에 지원되는 국고 예산이 종교편향이라며 문제를 제기하는 가운데 연경대 사회문화정책네트워크가 보도자료 등을 통해 정당한 예산집행을 촉구했다. 연경대 사회문화정책네트워크(이하 연사연)는 9월 2일 '2010년 9월 정기국회를 맞이하여 불교문화유산의 보존관리 정책과 예산지원에 대한

심도 있는 변화를 촉구한다'는 제하의 자료를 발표했다. 연사연은 "사찰은 종교단체이지만 국가에 의해 문화재 혹은 사적으로 지정되어 있어 종교단체 이전에 대한민국의 전통문화유산이며 공공문화유산"이라며 "불교문화유산의 관리의 공능적 측면 지원정책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사연은 "템플스테이 예산도 면

단위 지원정책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불교계가 정부 요청에 의해 100여 사찰에서 시설개선자금을 받아 보수 등을 현대화했으나 현재는 템플스테이 운영 사찰당 2-3억원 예산만을 받고 있다는 것. 연사연은 "템플스테이 활성화와 전통문화유산의 보존관리를 위해서는 문화재 유물의 유지보수에만 지급되는 국고보조금을 면단위로 유지·관리하고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는 종합적인 문화유산관리 정책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동섭 기자

몽도 채식 마도 채식 단기출가 30일 50일 100일 삼매체현 참선집중수련 5일

산사의 다이어트 감식 보식 무

참선 단식 아끼 손잡아 일으켜 세우듯 이끌어주는 간화선체험 다이어트 1일 3kg

인턴 사원 모집 (참선전문도량에서 수행 전법업무에 기여하고자 하는 분) 1. 분야 1. 기획, 관리직 : 0명 2. 아르바이트(대학생) : 0명 ※ 산사(참선도량)에 머물고자하며, 참선도량의 업무에 기여하고자 뜻이 있는 분(기획업무 유경험자 우대, 전법에 뜻이 있거나 수행업무 익히 기여하고자 하는 분), 연락바랍니다.

월간수련 원명선원 ☎1644-5266 **네이버카페** **월간수련** 에서 자세한 볼 수 있습니다.

14/15 간화선 세미나 수불 스님

간화선 수행이 한국불교의 기복적이고 비불교적인 행위를 극복할 수 있는 미래불교의 새로운 대안이라는 점을 명심해서, 간화선과 화두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토대로 참의심을 불러일으켜...

3 유신론 6.교육 **9** 현장 세대공감 운동회

16 감의실 중용과 정치 **19** 문화 불미전 수상작 전시회

박준수의 그림 법구경

다른 사람이 좋은 일을 했는지 하지 않았는지를 알려고 하지 말라

언제나 항상 스스로 자신을 반성하며 올바른 그릇을 알도록 하라

전선(케이블) - 연등승강장치 天上列車

※ 이제는 범당 연등 설치도 버튼 하나로 해결하세요.

연등 저등 승강장치 - 대구 여려사 연등 저등 승강장치 - 서울 화계사 외부에 시공된 전선케이블

찬덕불교에서는 **KS케이블**을 사용하여 가장 안전하게 **전문 기술인**에 의해 **직접 감독 시공**합니다.

찬덕불교가 개발한 영구위패 LED 인등 LED 전구

마산 금강정사 LED인등 용학사 극락전 영구위패

• 기존 전기요금의 10% 정도가 소모 • 열 발산이 적어 화재의 위험성이 적음 • 불빛이 사방으로 퍼져 화려한 밝기가 특징 • 사찰에서 원하는 규격에 맞추어 제작해 드립니다

아름다운 등

* 주름등 · 종등 주문 받습니다. (사찰명 인쇄)

'동해 독도는 한국 땅'

칼라(보카시)연등 공단등 오색공단등 영가등 종등

신상품 찬덕 LED 전구

1. 내열 ABS 내열특성 : 연화점온도가 100-120 °C로 우수한 내열특성을 가지고 있다. 연화점이란 (물질이 가열하여 변형되는 온도) 충격특성 : 내열성과, 내충격성 등의 물성 발란스가 우수하다.

2. 경제성 비교

종류	일반전구	찬덕 LED 전구
소비전력	10W	2W
효율	10 lm/w	50 lm/w
연간전기료	2146원	429원
수명보장		30,000 시간

3. 기존 전구에 비해 잘 깨지지 않는 재질의 커버 적용으로 파손의 위험이 적다.
4. 발열이 적어 기존 전구처럼 뜨겁거나 다칠 염려가 없습니다.
5. 전기료가 절감 되고 교체하는 번거로움 없이 오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1년 365일, 하루 6시간 사용 전기요금 : 98원/kwh

찬덕불교 경기도 광주시 신흠읍 수양2리 261-6 / 전화 : (031) 792-6288, 794-4055 / 팩스 : (031) 794-6288
www.chanduk.com / 취급품목 : 연등 · 주름등 · 전선시공 · 영구위패 · LED인등 · LED전구